제6회 영문자가타 암송대회는 전국에서 82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예선을 거쳐 25개팀 29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자리는 실력의 고하를 떠나 모두가 부처님 전생담을 얘기하며 웃고 즐긴 어울림 한마당이었다.

부처님 전생담을 영어로… 동심 한마당

1월 12일, 제6회 영문자타카 암송대회… 대상에 수원 용주사 장수정 학생

"once upon a time(원스 어폰어 타임), the lion and wolf…"

화려한 꽃으로 장엄한 무대 위에 오른 천진불들 입에서는 연신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옛날 옛적에…' 로 시작하는 전생담은 아이들 입을 통해 영어로 구연됐다. 수많은 관중 앞에 선 어린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닦은 실력을 뽐내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고, 외운 부분을 잊어버리기도 해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 6회 영문자가타 암송대회 본선 모습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가 주관한 이날 무대에 오른 이들은 총 25개 팀에 29명. 예선에는 서울 조계사, 봉은사, 대구 한국불교대학, 부산 홍법사 등 전국 22개 사찰서 87개 팀 82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무대에서 어린이들은 각자 준비한 인형 장갑 등 소품으로 전생담 구연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일부 어린이들은 아예 동물, 왕 등으로 의상을 맞춰 입고 직접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용주사 김맑은(12), 김고은(10) 학생은 언니가 늑대 역을 동생이 사자 역을 맡아 동물 옷을 입고 직접 장면을 연출했다. 또한 봉은사서 온 지유진(11) 학생은 요정 옷을 입고 춤을 추기도 해 객석에 높은 호응을 받았다. 비로자나국제선원 한서연(13) 학생은 호랑이, 늑대 등 여러 동물의 얼굴을 입체 종이로 만들어 마치 경극 하듯 구연했다.

어린이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영어임에도 또박 또박 최선을 다한 어린이들 모습에 지도 선생님과 사찰 동료들은 손에 땀을 쥐고 응원했다. 어렵게 암송한 자타카 내용을 잊어 우물쭈물하면 객석에서 다음 문장을 입으로 함께 말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중간 중간 생각나지 않아 스스로 실망하는 아이들에게는 박수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외국인 교수들은 아이들의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나올 때 마다 놀란 표정과 함께 관심을 보였다.

봉은사와 비로자나국제선원, 홍법사 등에서는 피켓을 들고와 응원전을 펼쳤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자우 스님은 "참가한 어린이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영어 구연을 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그 자신감이 영어실력을 늘게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까. 영문자카타 암송대회에는 매년 꾸준히 참가자가 늘고 있다. 사실 아이들의 암기력 만으로는 영어 구연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한편의 이야기가 짧은 자타카는 영문 암송대회 소재로 제격이다.

이날 심사를 한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어린이들이 영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우며, 국제화 시대에 맞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삶의 지혜를 얻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태어나다', '태어난 사람' 이라는 산스크리트 어 의미를 지닌 자타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과거 생을 설화로 표현한 자타카를 암송하며 어떤 점을 느꼈을까.

부산 홍법사 김보현 학생(15)은 "본선에 올라오니 많은 사람들 앞이어서 조금 떨렸다"며 "응원하는 박수소리가 힘이 됐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대상은 수원 용주사 장수정(12) 학생이, 최우수상은 서울 봉은사 지유진(11), 구도은(11) 학생이 수상했다. 참가학생들은 서로 격려하고 즐긴 어울림 한마당이었다.

또 사찰 응원을 열정적으로 진행한 국제선센터, 봉은사, 홍법사, 대구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도 사찰별 단체참가상이 수여돼 대회에 온 스님과 사찰신도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했다. 대회가 끝난 뒤 서로 손을 잡고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가 비춰졌다. **노덕현 기자**

"아이들 인생에 등대역할 할 것"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회장

"영문암송대회는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표현력과 자신감 성취 등 자라나는 아이들 인생에 등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외우며 공부한 아이들이 사회의 동량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이날 대회에 참가한 모든 아이들이 대상감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고 있는 영문자타카암송대회는 2008년 1월 첫 대회를 시작한 이래 어린이포교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5회 대회에는 서울, 대구, 부산 등 18개 사찰에서 70개 팀 78명의 어린이가 참여한데 이어 이번 대회 까지 매년 학생들의 참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도 스캇 스캐터굿 아주대 교수 등 외국인 대학 교수 3명을 포함해 심사위원의 폭이 늘어나 보다 엄정한 심사가 진행됐다.

권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자타카의 한편 한편에는 정직과 인내, 배움의 중요성과 자비 등 반드시 알고 익혀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며 "준비하는 동안 다니는 사찰에 대한 애정이 더욱 생기고 가족 간 화합이 돈독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1팀, 인기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장려상 6팀, 심사위원상 11팀이 선정돼 모든 아이들에게 상이 돌아갔다.

권 회장은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며 모두에게 대상을 주고 싶다. 지도해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국제포교사 활동 강화, 영어법회 지원 등으로 세계화 시대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불자들을 양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12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연속 7주 베스트셀러 1위
각박한 세태의 현대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영혼 길잡이
수행인의 양심으로 말하는 윤회와 사후세계의 진실
개정판

"나는 염불삼매 속에서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선량하게 산 사람들이 가는 하늘세계도 있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지옥도 있으며
성자들이 가는 해탈열반의 세계도 있습니다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 따른
세계종교 비교
감수·자재 만현 큰스님
글·법장 김중섭
720쪽 | 값 25,000원
▶ 달라이 라마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이 시대 인류가 읽어야할 양서!
※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